

매일 회개하여라.

작성일: 2010. 3. 01. (월)

작성자: 장현순 (월명동 형상도에)

* 예수님 말씀 *

(이른 저녁에,
피곤했던 것이 쌓여서 예수님께 피곤함을 풀어 달
라고,
할 일 많지만 자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.
그리고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.
몸의 피곤함도 헛바늘도 없어졌습니다.

오늘은 새벽기도 찬양인도를 해야 되기에 다른 때
보다
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서 3시 30분에 기도를 시
작했는데
눈을 감자마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해 주
셨습니다.
사탄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를 사랑하시냐고 물어보
고
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적었습니다.)

오늘은 늦었지?
나와 깨어서 기도해야한다.

긴장의 허리띠를 하루라도 풀어선 안 된다.
자! 찬양으로 나에게 영광 돌려 보아라.
내가 먼저 너의 곁으로 다가 왔노라.
기다렸다는 의미다.

자, 오늘의 보화는 나와 함께 영원함이다.
내가 바빠서 너에게 먼저
내 보화를 꺼내 주고 가려고 한다.

섭리의 내 신부들아 사랑한다.
너희가 날 아프게 하고
눈물 흘리게 하고
나의 몸에 못을 박고
나를 갈기갈기 찢어도
난 너희들을 사랑한다.
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영원하리.

하지만 나의 것이 되었을 때
그 사랑 너희도 느낄 수 있으며
나의 것이 되었을 때
내 사랑 나도 맘껏 걱정 없이
퍼 부어 줄 수 있구나.

사랑해서 주고 싶은 것이
많은 내 마음 알아다오.
너희가 사랑만 지킨다면
나 너희에게 다 해주고 싶구나.

사탄들이 너희를 날로 잡아 삼켜
먹으려고 몰려와
틈을 노리고 있노라.
그러니 주변에 항상 사탄들이
도사리고 있다는 것을
늘 의식해야 하느니라.

너희 마음이 바뀌고,
사상이 바뀌고, 행동이 변한다면
내가 너희들 깨끗한 섭리에 들 수 없다.

썩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면
냄새나고 벌레 생기고
각종 원치 않는 것들이 생겨난다.
파리 때 같은 사탄
구더기 같은 사탄
각종 벌레들과 같은 사탄이 냄새 맡고 몰려온다.

그렇게 되면
같이 있던 내 신부들도 해를 입기에
영향 받기에
내버려 둘 수 없는 나의 입장을 알아다오.

쓰레기 그냥 그대로 오랜 시간 놔두면
썩어버려 그 냄새 온 집안에 가득하다.
그렇게 되면 주인도 살 수 없고
창피해서 손님도 집에 못 들인다.
이와 같이
나도 내 섭리에 있을 수 없게 되고
하나님 성령님도 오실 수 없는 것이다.
그러하니 쓰레기를 그냥 뒀다.

나도 살리고 싶고

나도 함께 해 주고 싶지만
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.

그러니 매일 회개하여라.
오물은 조금도 남겨 놔서는 안 된다.

나는 내 품에
깨끗하고 온전한 것만
담아 갈 수 있는 자니
깨끗이 너희 자신을 살피거라.

너희가 너무 좋다고 내가 내 의향대로
덜 깨끗한 자를
나의 품에 넣고 하늘나라 가봤자
하늘나라 문에서 법에 의해 걸린단다.

결국은 내 나라에서 못살게 되는 것이다.
그러니 깨끗케 하여라.

너 나의 신부다.
기회 있을 때 내가 용서해
줄 때 회개해야 한다.
너 나의 신부.
나 너의 신랑.
원하고 원하던 신부의 역사.

내 사랑들아.
생활가운데서 짓는 생활쓰레기 같은 조금한 죄들은
생각났을 때, 내가 깨우쳐 줬을 때,
그때그때 해야 한다.
나에게 고하고 없애고 행해야 한다.

개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라.
안 한다고 하고 또 하면 안 된다.
한두 번은 내가 봐줄 수 있으나
계속 반복되면 사탄이 틈탄다.
그것을 꼬리 잡고 사탄이 들어온다.
그러니 사탄을 물리치며
너의 행동 꼭 붙잡고
근원되는 마음 꼭 나에게 묶어 놓고 가야 한다.

사랑해. 나의 섭리야.
그렇게 해야만 나와 영원히 살 수 있구나.

안녕 나의 사랑들아.
오늘도 고맙다.

나와 사랑하는 기도시간이구나.
나와 뜨거운 사랑하자.
날 녹여다오.
너의 진정, 진심이 날 녹인다.
오늘도 너희 선생 힘주고 기도하여
내가 원한 뜻을 이루어라.
사랑한다.
나의 마음 전하노라.